서울의 달과 부산의 달

(고전15:12~35)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서울의 달과 부산의 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서울의 달과 부산의 달.
혹시 부산에서 광안리로부터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광안대교를 달이 밝을 때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부산이 많이 바뀌었어요.
밴쿠버에 가있을 때, 밴쿠버의 바닷가에 높은 고층빌딩들이 서있는데 그게 콘도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스타들이 거기에 별장식으로 그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운대가 그 못지않아요.
정말 모든 아름다운 사랑의 사건들이 다 일어날만한 그런 정취가 풍기는 그런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설을 써봅니다.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달과는 전혀 다른 달이지요, 이 달은.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의 달은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데, 오늘 말하는 이 달은 전혀 다른 아주 로맨틱한 달입니다.
제가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서울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은 부산에 삽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달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애인 생각이 납니다.
불현 듯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부산에서 저렇게 달이 휘영청 밝게 빛나는 날 달빛이 쏟아지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해운대 해변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프러포즈 이벤트를 해야겠다!'
날을 잡고 약속을 하고 애인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근무하고 다섯 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11월만 돼도 벌써 다섯 시 여섯 시만 돼도 달이 뜹니다, KTX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에서도 달이 보입니다, 대구에 왔어요, 대구에서도 달이 보입니다.
부산에 와서 드디어 그 달빛 아래서 프러포즈 이벤트를 하고 프러포즈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쓴 소설이에요.

무얼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본 그 달이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떠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달빛 아래서 진행되어야 될 그 프러포즈를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달빛은 이미 이벤트 두 세 시간 전 서울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달이 부산에 내려가도 계속 부산의 달이고, 이벤트를 낭만적으로 만들어 줄 부산의 달빛은 이미 두 세 시간 전에 서울에서 KTX를 타고 출발할 때부터 보고 있는 달입니다.
이 달, 서울에서도 보는 그 달이 미래에 이벤트 현장에 비쳐질 그 달과 동일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 부활신앙의 이해를 돕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장된,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약속되어진 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되어진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 나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 이게 부활신앙 아닌가?'
이것만으로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신앙이라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제 살다가 죽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다 죽습니다.
주위에 그동안 존경하던 분들, 가까이 친하게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던 모든 분들이 다 죽습니다, 또 나도 죽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언젠가 죽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재림 때에 홀연히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신앙을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 순간을 가만히 내다보아도, 어차피 내 의지를 갖고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있을 뿐 내 의식은 부활을 몰라요, 또한 지금 내 목숨도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 마음이 휩쓸려가는 것은, 당장 내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상황들입니다, 이 삶의 상황에 대처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미래의 일로 미루어놓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은 인정하고 죽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해놓고, 부활신앙이 완결된 것으로 치워놓아 버리고, 그냥 현재는 주어진 현실의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부활이 주어질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회의하게 되는지, 이제 부활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미래로만 미루어놓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과연 참다운 부활신앙으로 성립할 수 있겠는가?
글쎄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기둥과 현재의 기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둥 중에 어느 기둥이 없어도 부활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미래의 기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젠가 미래에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은 오늘 오실 수도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요.
어쨌든 지금을 기준으로 볼 때 미래의 일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부활이 일어나면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에 들어갈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이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머리 위에 그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고,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부활함으로써 주님이 가계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해가지고 구천을 떠돌고 다닐 바에야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잠들어 있는 게 낫지.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게 미래의 사건인데, 그 미래에 부활해서 들어갈 천국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동시간대에 바로 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달빛 아래서 지금 프러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산의 달빛을 서울에서 발견했다는 얘깁니다.
서울의 달에서 달빛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다면 부산에서의 달빛 아래의 프러포즈 이벤트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부산에서 이벤트 할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에 이벤트 현장에 비칠 빛의 주인공인 달은 서울에서 이미 본 것이고, 서울에서 그 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다면 미래에 부산의 이벤트 현장에 비칠 달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19절에 부활신앙의 특징적 윤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신앙의 특징적인 윤곽이 무엇입니까?

먼 미래에 부활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내 머리 위에 있음을 알고 그 머리 위에 지금 있는 하늘나라에 대해 취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부활신앙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미래적인 부활신앙의 참과 거짓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세상에서 가질 것도 많고 기쁠 일도 많아서 그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느라고 정신이 다 팔려 있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고 믿고 미래의 일로 다 미뤄놓은 다음에 까맣게 잊고, 지금 현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겠다고 믿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 뺏기고 살다가 꼴딱 죽었는데, 그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그 부활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 마음에는 돈 돈 하고 살다가, 마음에는 지금 현재 성공 성공 하며 살다가,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영원무궁 오래오래 살기만 바라고 살다가, 그게 마음의 소원의 전부였는데, 언젠가 알 수도 없이 까마득히 오래 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것이 인정받아서 부활하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마음을 조금도 들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70인에게 능력을 주시고 두 명씩 짝을 지워 전도 보내십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 놀랄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온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기쁨 자체를 봉쇄하시는 게 아니고 기쁨의 이유를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현재 기쁨의 이유가 하늘이 아니라면, 부활해서 갈 천국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래서 아무런 기쁨의 이유도 만족의 이유도 될 수 없다면, 부활신앙 제로라는 얘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 자신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나 자신이 가려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느껴지지 않아서 슬퍼하면 참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돈을 믿는 거예요.
하늘 때문에 천국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온전한 모습은 미래에 있을 부활과 부활해서 들어가게 될 천국을 믿고, 그리고 지금 내 머리 위에도 있는 바로 그 천국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해서 들어갈 미래의 그 천국이 지금 내 머리 위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내 머리 위의 천국 때문에 기뻐하는 것, 부산에서 이벤트 현장에 비치게 될 달빛을 서울에서도 보면서 이벤트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서울에서 그 달빛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자만이 부산에서 그 달빛 아래서 이벤트 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생의 결산의 이벤트가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앞에 감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앞에 신령한 몸을 입고 가게 될 그 이벤트 현장, 그 천국의 빛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천국의 빛을 볼 수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 천국으로 소유하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도바울이 31절에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선교할 때에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세상 방식으로 그것에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항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물론 피하는 현장이 있었지만 그 마음 자체가 목숨을 구하

려고 피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피하게 해주신 거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기 전에 사도바울 자기 스스로가 그 위험 앞에서 먼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내 목숨에 대해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서 당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부활합니다. 참 묘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 몸이 죽게 되면 재림 때까지 잠들었다가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미리 죽어버릴 때 마음이 똑같이 부활을 해버립니다, 지금 미리 부활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활하게 되면 승천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그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부활이 앞당겨져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그럼으로써 이 순간에 또 부활하게 되면서 미래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지금 내 천국으로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들 순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날마다 죽음으로써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가장 전형적으로 완벽하게 일어난 일이 스테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 순교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씩씩거리기는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미 내적으로 금이 가고 있었고, 외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사도바울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미 스테반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 죽었으니까 사람들의 죄를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죽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스테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산의 달은 미래의 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달을 지금 현재 내가 서울에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달을 보며 그 달빛의 아름다움을 본 자가 미래에 있을 부산의 프러포즈 현장에서의 아름다운 달빛을 또한 소유하게 됩니다.
서울에 달빛이 있는데도 하늘을 향해 달을 볼 수 없는 자는 부산의 달도 못 봅니다.
오늘 지금 내 머리 위에 천국이 떠있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세상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마음이 죽는 자, 그래서 마음이 부활하게 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온전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온전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하루 현재 내 머리 위에 떠있는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부활신앙 안에서 진행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서울에서 달을 본 자만이 부산에서도 달을 볼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머리 위에 있는 천국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며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심으로 진정으로 미래에도 그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